

보도	2024.12.4.(수) 조간	배포	2024.12.3.(화)
----	------------------	----	---------------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안태승	(02-3145-7130)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기철	(02-3495-9300)
		담당자	팀 장	장재환	(02-3495-9310)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훈련 성과 및 향후계획

매년 사이버위협이 양적으로 확대, 질적으로 고도화 되어 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해커) 등을 통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올해 2차례 실시*하였고,

* (보도자료, '24.2.15 / 10.23) 화이트해커를 통한 은행업권 / 제2금융권 모의해킹 훈련실시

훈련 일시·대상·방법을 비공개로 금융회사의 탐지·방어 체계를 불시에 점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2024년 상·하반기 블라인드 모의 훈련 내용 >

일정	훈련 대상(권역)	실제 점검회사	점검 유형
상반기	은행	6개	서버해킹, 디도스공격, LLM공격*
하반기	증권·보험·카드, 생성형AI	12개	

* LLM(Large Language Model) 생성형AI의 거대언어 모델에 비정상 답변을 유도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상반기에는 전체 은행(19개)을 대상으로 실제 6개 회사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 및 생성형AI(LLM)을 대상(83개)으로 총 12개 금융회사 등을 불시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망분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조만간 금융권이 도입하게 될 **생성형AI(LLM)**의 **강건성***을 점검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 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 생성형AI(LLM)이 어떠한 환경(비정상적 질문)에도 정상적인(건고한) 기능을 유지하는 특성

금번 2차례 훈련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외부 사이버위협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 즉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 훈련결과 취약점 발견 주요 사례 -

- (사례1) A 금융회사의 웹서버에 허가받지 않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안통제 강화 등 즉시 조치
 - 회사측은 단일 공격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능한 중요 취약점임을 인식하고, 불법침입 시도에 대한 웹방화벽 설정정보 강화 및 관련 통제기능을 강화
- (사례2) B 금융회사는 디도스(DDOS) 모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서비스 지연이 발생한 바, 모바일 앱(App)에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확인
 - 회사측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대피소를 추가하고 대외서비스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금번 훈련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기존의 훈련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경영진을 포함하여 **회사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훈련사례**로 정부 부처대상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훈련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방안도 논의하는 등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24.3.21) 금융위·금감원, 정부부처 대상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앞으로 블라인드 기반의 훈련을 지속 **확대·고도화**하여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